

원자력관련 과학기술부 고시 배포

협회는 12월 12일(월) 최근 제정 공포된 원자력관련 과학기술부 고시를 회원사의 방사선안전관리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배포된 고시>

- 제2005-18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 제2005-7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 제2005-1호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판매기관에 한함)
- 제2004-27호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그린피아기술(주), 소야(주), 원자력의학원 등에 한함)

유관기관 동정

과학기술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오명)는 지난 3월 31일 제정·공포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6호)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법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비파괴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파괴검사 수행에 대해 검사자와 감독자가 책임을 지는 검사실명제가 도입되어 원자력발전시설, 중화학 시설, 교량 등 국민의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검사대상물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전

문 기술인력의 양성과 검사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파괴검사(NDT : Non Destructive Testing)기술은 방사선 및 초음파, 전자기 등의 물리적 현상을 응용하여 물체(철/비철 금속)를 파괴하지 않고 원형의 상태에서 결함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기술은 우리나라에 1960년대 초 도입된 이후 국가기간산업시설의 안전성 검사와 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그 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현재 1500억원 내외의 비파괴검사업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환경방사능감시 40년」 발간

- 지난 40년간 축적된 환경방사능감시 자료의 종합정리 -

과학기술부는 지난 40년간 축적된 우리나라 환경방사능 감시자료와 활동을 종합 정리한 「국가 환경방사능감시 40년」을 발간하고, 12월 13일(화) 오후 2시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신원기)에서 최석식 과학기술부차관과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기념식에서 최석식 차관은 방사능환경감시 업무 관계자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시장비의 현대화와 기술개발 등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방사능환경감시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국가 환경방사능감시 40년」은 우리나라 환경방사능 감시체제, 감시조직 및 운영, 감시방법 및 기술개발현황과 국내·외 동향 등이 종합 정리되어 있으며, 우리 국민의 방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 동시에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중앙측정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12개의 지방방사능측정소와 25개의 간이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37개 측정소의 환경방사선감지기를 온라인으로 연결한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IERNet)으로 감시결과를 수집하여 인터넷(<http://iernet.kins.re.kr>)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 제4차 지역방사능방재발전 세미나 개최 -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능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의 재난 대응과 수습활동에 관한 지역방사능방재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12월 15일부터 이틀간 온양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동 세미나에는 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시·도 지방자치단체 4기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5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14개 기관이 참가하였다.

동 세미나에서는 2006년도 지역방사능방재계획수립과 지역방사능방재발전방안을 토론하고 관계기관의 책임자 및 전문가의 교류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함

으로써 방사능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난대응체계, 주민보호 등 현장 대응에 필요한 공동 관심사항과 국가 및 지역방사능재난관리 협조지원체제를 점검하였다.

최근 과학기술부는 방사능재난, 방사선사고 및 방사능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04. 2. 16 시행)”에 따라 2006년도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동 집행계획 지침에 따라 2006년도 지역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체방사능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부 고시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

과학기술부는 행정규칙 중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5호)”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방사선기기

의 품질관리 절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방사선기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의 품질관리 조치계획”(제5조제2항제2호)으로 구체화 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3회 원자력 안전포럼 개최

2005년 12월 1일(목)~2일(금) 양일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신원기) 주최 과학기술부 후원으로 “고객 중심의 원자력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제3회 원자력안전 포럼이 개최되었다.

4개 원전지역 주민 및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영광, 고리, 울진), 언론계, 과기부, 한수원(주), KOPEC, KINS 등으로부터 160여명이 참석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1부 순서로 방사선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울산환경운동연합, 류석환공동의장), 원자력안전에의 주민 참여(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 김동식집행위원장) 및 원자력 안전규제와 대중 참여(평택대학교, 사공영호교수)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2부는 패널토의로서 진행자(유애리 KBS차장)의 진행으로 주제발표자 3인과 지정토론자 4인(남효선,

이현석, 정원용, 박윤원)가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여 고객중심의 안전규제와 대중 참여, 주민 불신과 대책,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정체성 등에 관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둘째날 지역별 현안토의는 4개 원전 지역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KINS 담당 PM이 2005년도 원전 규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안전현안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토의하였다. 종합토의는 각 지역의 토의결과를 듣고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원전지역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사전에 제기한 원전 현안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과, 정부, 안전기술원, 원자력사업자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로 “사회의 정서와 가치를 먼저 수용”하는 열린 자세의 포럼이었다.

회원사 동정

한국원자력연구소

대덕연구단지에서 ‘한·미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터’ 개소

21세기 들어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대덕연구단지에 원자력연구소와 두산중공업, 미국GA사가 공동 참여하는 원자력수소 공동연구센터가 설립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박창규)는 12월 7일(수) 오전 11시에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 개소식을 연구소 내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민 국회의원, 구노회 국회의원을 비롯한 염홍철 대전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사, 두산중공업,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국내외 원자력 산업계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번 공동연구센터 설립으로 원자력연구소는 고온가스로 개발과 관련한 GA사의 축적된 연구 경험과 원천기술을 공유하게 된다. 또한 국내 원자력수소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연구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핵심 기술인 고온가스로 개발에 필요한 예산절감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공동연구센터에는 향후 수소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비롯한 정보 교환 및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대덕연구단지에 GA사의 전폭적인 투자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원자력수소공동연구센터 설립에 대해 원자력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원자력 수소상용화를 위한 프로젝트 NGNP(Next Generation Nuclear Plant)에 GA사와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 효율성 및 경제성이 뛰어